연구 자료

일본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유 승 우* 최 동 주**

Abstract

"Green Tourism" means "stay-type leisure activities which cherish the importance of learning through various experiences in areas with excellent natural resources." The policy of green tourism in Japan aims to build beautiful rural villages, to accommodate city dwellers, to establish urban-rural information networks, and to promote its support system. One of its major implications is that local governments have initiated development programs and actively supported them. To develop Korean green tourism needs, we should redefine the concept including more diverse activities.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s crucial, and public subsidies should be expanded in order to assist management. The central government oriented policy implementation has been problematic. In order to make green tourism effective in Korea, it must be carried out by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can reflect their own regional characteristics with flexibility.

1. 그린투어리즘의 개념
2. 그린투어리즘의 추진배경과 특징
3. 그린투어리즘 추진시책의 방향
4. 그린투어리즘의 전개방향
5. 일본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시사점

1. 그린투어리즘의 개념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이란 개념은 사용하는 사람 및 국가에 따라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그 용어 또한 다양하다. 즉 유럽에서는 그린투어리즘과 같은 의미의 내용을 갖는 용어로서 「농촌관광」(rural tourism), 「부드러운 관광」(soft tourism), 「대안 관광」(alternative tourism), 「인간적인 관광」(human tourism), 「자연관광」(nature

* 연구위원
**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사무처장

tourism), 「책임있는 관광」(responsible tourism), 「생태관광」(eco-tourism),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山崎光博 외 1997).

일본에 있어서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린투어리즘연구회(농림수산성 구조개선국 자문기관)의 보고서는『푸르름이 충만한 농촌지역에서 그 지역의 자연, 문화, 예술,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는 체재형 여가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야마자키 미츠히로(山崎光博)는『농가민박 임대별장, 농촌체험시설 등을 이용하여 농촌지역에 체재하면서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문화, 전통 등을 즐기는 여가, 휴양의 형태』라고 정의했다. 나카무라 오사무(中村攻)는『그린투어리즘은 종래의 명소탐방, 유명리조트에서 하는 관광여행과는 다른 형태로 녹음이 있는 자연,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장소에서 휴양, 자연관찰, 지역의 전통적·개성적 문화와의 만남, 농촌생활 체험, 농촌 사람들과의 교류를 추구하는 여행이다』라고 정의했다.

이상의 정의를 종합하여 보면 그린투어리즘은『자연자원이 뛰어난 지역에서 다양한 체험을 중시하는 체재형 여가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2. 그린투어리즘의 추진배경과 특징

2.1. 신정책과 그린투어리즘의 제창

농림수산성은 1992년 6월 GATT의 UR 합의를 목전에 두고 21세기 일본 농업정책 본질의 기본방향을 나타낸 「신 식료·농업·농촌의 방향」(신정책)을 발표했다. 「신정책」은 모든 규제 완화의 기조에 따라 농업보호와 규제로부터 시장원리를 도입한 일련의 움직임에 의해 새로운 농정체계를 지향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4개의 기본 이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선·양질의 안전한 식료를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국내 공급력을 유지·강화하고 필요한 식료의 안정적 수입과 그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둘째, 소비자의 입장에 서서 유통면에서 규제완화, 명칭·표시의 적정화를 추진하고,

셋째, 노동시간의 단축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나 푸르름이 풍부한 여유있는 주거공간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입각해서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전통·문화가 보존된 풍요로운 농촌을 가꾸어 나가고,

넷째, 농림업활동을 통해서 국토 및 환경의 보전을 도모하고, 국민 고유의 재산인 지역자원과 국토를 가능한 한 양호한 상태로 후손에 물려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린투어리즘」이란 낱말은 농림수산성이 1992년 6월에 공표한 「신 식료·농업·농촌의 방향」(신정책)에서 처음 등장했다.

1992년 7월 농림수산성은 그린투어리즘연구회(농림수산성 구조개선국 자문기관)의 중간보고서를 바탕으로 그린투어리즘을 제창하였다. 그 결과 일반대중에게 그린투어리즘이 알려지게 되었고, 1992년의 「농촌에서 즐겁고 여유있는 휴가를」이라는 구호로 각종 매스컴의 홍보를 통하여 "농촌에

서 휴가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농림수산성은 「푸르름이 짙은 농촌지역에서, 그 자연·문화·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는 체재형 여가활동」을 핵으로 하는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정비 촉진에 관한 법」(속칭 그린투어리즘법)을 1994년에 제정, 95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 일본에서도 마침내 그린투어리즘이 제도적·정책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이 법은 여가활동에 필요한 기능정비와 농림어업 체험민박업의 건전한 발달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할 일은 물리적인 기반(시설) 정비가 아니라, 그 기능(소프트) 정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그 시책 또한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여 시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縣이 「기본방침」을 정하고, 그에 따라 市町村이 「정비지구」에서 행할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린투어리즘이 행해지는 「정비지구」란, ① 농림어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것을 보고 체험할 수가 있고, ② 푸르름, 물, 경관 등 자연조건이 뛰어나고 전통과 문화유산이 풍부하며, ③ 지역민들과 합의를 거친 그린투어리즘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것 등과 같은 조건들이 갖추어진 지역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촌관광, 혹은 전원관광을 매개로 도시 거주자든 농촌 거주자든 간에 모든 국민의 「공통의 고향인 환경과 경관을 지켜가는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에 이른 것이다.

1999년도 「식료·농업·농촌의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모두에 구 농업기본법에서 「신기본법」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급속한 경제적 발전 속에서 물질적 풍요로움을 추구해 온 일본의 경제사회시스템은 큰 전기를 맞이했다. 지구자원의 유한성, 환경문제의 중요성, 식료위기의 불안 등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 조류는 조화와 공존, 건강이나 삶의 쾌적함과 아름다움을 우선하는 가치관이나 문명의 모색, 창조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삶과 생명」의 근간에 관련된 食料와 그것을 지탱하는 농업·농촌의 가치가 인식되어 안심과 안전의 초석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과 더불어 앞으로 일본의 도시주민 사이에는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관심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가 된 농촌지역에서는 도·농 교류,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2. 그린투어리즘의 특징

그린투어리즘은 우선 농촌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창조한다. 그린투어리즘은 자연환경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업이다. 따라서 그린투어리즘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은 자연환경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이것은 다시 지역환경의 정비뿐만 아니라 기상, 대

기정화, 야생동식물보호 등을 유도하는 방법이 된다.

그린투어리즘은 또한 지역자원의 개발·활용, 지역성 창조를 촉진한다. 그린투어리즘은 농촌에 도시민을 위한 자연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자연탐방, 생태교육, 체험학습(관광농원), 산촌학습, 지역의 전문적인 자연 및 지역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과 도시의 교류의 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관광 레크리에이션의 장소를 제공하여 일반 스포츠, 물을 이용한 레저스포츠, 건강유지, 삼림욕 장소 등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역자원 개발과정을 통해 지역민의 자주적 발상에 의한 특성, 즉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지역 나름의 독창성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의 차별화된 특성은 그 지역 고유의 전통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전통민속의 재현 및 축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은 또한 지역성 창조에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러한 그 지역 고유의 전통과 문화의 증진은 도시민과 지역주민의 교류를 통한 경제적, 사회적 이익 측면 이외에도 21세기 지식·문화사회를 준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그린투어리즘은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준다. 일본의 경우 그린투어리즘이 시행되는 지역은 중산간, 산간 마을이 많다. 그린투어리즘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이들 지역은 농산품, 임산물로 생계를 영위해야 했으나 보급 이후 離農率이 저하되고 관광농원 및 민박(民泊)을 중심으로 관광소득을 올리고 있어 점차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그린투어리즘은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다. 그린투어리즘으로 지역기반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공공시설확충과 복지시설이 도입되고, 이것은 지역민에게 안락과 삶의 질 향상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더 나아가 지역

그림 1 **그린투어리즘의 3가지 기본형태, 5가지 만남**

기 본 형 태	대 응 관 계	만 남(교류)	
		중개하는 것(주체)	구체적인 예
가정이나 집락이 되어 고객접대		상 품 (농산물, 가공품)	만남의 시장(아침시장, 저녁시장), 산지교류, 物産館
		전승문화	공양일 지역축제, 향토요리, 가공체험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		주체가 불필요한 경우	마주 대하는 농가민박
		경 관 (자연자원)	반딧불 축제, 캠프장
노동·놀이·교육이 혼연일체		농 지	시민농원, 관광농원, 계단식 논 오너제, 어린이학습농원

자료: 横川洋(1998).

정주권을 새롭게 진흥시키고 전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보전, 지역문화보전, 농촌활성화 등에 있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다양한 경제외적 효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한다.

그린투어리즘의 기본 형태는 세가지이다.

첫째, 가정과 마을이 서비스의 주체가 되어 고객을 접대하는 경우 둘째, 방문자와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면서 서비스를 하는 경우 셋째, 서비스의 내용이 노동과 놀이, 그리고 교육이 혼연일체화 되어 있는 경우 등이다.

3. 그린투어리즘 추진시책의 방향

3.1. 도입초기의 기본추진방향

일본형 그린투어리즘의 기본정책이 되고 있는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정비촉진에 관한 법」(1994년 제정)에서의 그린투어리즘 추진시책의 방향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아름다운 마을건설 추진이다. 아름다운 마을을 건설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생산기반과 생활기반의 전반적인 정비와 지역자원(수자원, 산림자원 등)을 활용한 경관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거주공간」, 「여가공간」을 형성하는 것이다.

한편 지역주민의 사업참여 도모와 자연환경 및 지역자원 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토지이용의 추진과 지역의 경관보전 및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협정, 조례 등의 검토이다.

둘째, 도시민 수용체제의 정비이다.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서비스질 향상 및 농가민박시설 정비사업을 의미하며 경영관리를 위한 컨설턴트, 연수시설 확대와 농림어업 체험지도·교육을 위한 인력육성, 그리고 숙박시설의 정비, 숙박시설의 등록, 숙박시설간의 조직강화, 민박의 고유한 프로그램 정비 등이다.

셋째, 도시·농촌상호 정비시스템의 구축이다. 도시와 농촌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농촌정보시스템의 네트워크화와 도·농간 지속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및 정보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넷째, 추진 지원체제의 정비이다. 도·농간의 이해와 공감을 형성키 위해서 官·民의 연계에 의한 그린투어리즘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다.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천적 지원체제정비 사업으로 그린투어리즘 추진의 지도체제와 관·민의 협력·분담체제정비 등이다. 그리고 기업, 은행, 소비자단체, 노동조합, 생협 등과 농촌의 교류를 위한 체제정비의 검토이다.

3.2. 21세기 그린투어리즘의 추진방향

3.2.1. 그린투어리즘의 조건정비의 본질

「신기본법」에 입각한 「식료·농업·농촌의 기본계획」(2000년 3월)의 「농촌의 진흥에 관한 시책」에서는 우선 「농촌은 농업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생활의 터전이고, 그런 터전에서 농업이 영위됨으로써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업이 갖는 식량과 기타 농산물 공급의 기능 및 다면적 기능이 적절

하고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생산조건의 정비 및 생활환경의 정비, 기타 복지향상에 의해 농촌진흥이 도모되어져야 한다」라는 조건 위에 도·농 교류, 그린투어리즘에 관련되는 몇 개의 시책을 내 놓고 있다.

첫째, 농산물 등의 부가가치향상과 판로의 확대를 꾀하기 위한 가공유통시설 등의 정비촉진, 지역자원을 활용한 내발형 향토산업의 육성, 지역 관광자원의 활용과 향토산업의 일체적 진흥(중산간지역 등의 진흥)을 도모한다.

둘째, 그린투어리즘의 추진, 농산물 산지직거래를 계기로 농업체험의 촉진, 그 외에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확보나 교류장소를 정비함으로써 도·농 교류를 꾀한다.

셋째,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해 가면서 도시주민에게 지역의 매력을 높여 도시주민과의 교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도로, 하천, 공원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

넷째, 도시주민과의 농작업에 의한 건강가꾸기, 고령자의 보람 만들기, 가족과 함께 흙과 접하는 레크리에이션의 수요에 부응해 농지의 유효한 활용에 이바지하는 시민농원에 대해 적절하고 원활한 정비를 추진한다.

다섯째, 신선한 농산물의 공급, 농업체험의 장소 등 도시주민의 수요에 맞춰 도시 및 그 주변의 지역에 있어서 농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산물 직거래시설의 정비, 도시주민에게 정보제공 등 적절한 진흥책을 강구한다.

위와 같이 「기본계획」에서는 WTO체제하의 농촌정책으로서 도·농 교류의 촉진, 그린투어리즘의 조건정비에 관련된 시책을 강구해 갈 것이라고 하지만 농촌 사이드의 그린투어리즘 정비는 말할 것도 없이 지역단위의 추진이 필요하고 그린투어리즘을 농촌지역의 취업기회의 확대, 지역활성화에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그린투어리즘 관련 비즈니스의 기업화가 필요하다.

즉 그린투어리즘의 조건정비는 「풍요로운 자연환경의 보전」, 「아름다운 경관 꾸미기」, 「역사적 문화유산의 보전·복원」, 「전통문화의 계승」, 「지역개성에 입각한 새로운 지역문화의 창조」, 더욱이 「환경보전·경관 유지」와 연계되고,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식료품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농업의 구축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들은 모두 지역단위의 추진을 필요로 하며 행정기관, 관련단체, 지역주민이 일체가 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체재 숙박시설, 직매소, 농가 레스토랑, 관광·체험농원, 농산가공·도예·목공 등 각종체험시설, 그 외 향토산업 등 물건 만들기부터 서비스제공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업종이 상정되지만, 어떻든 그린투어리즘 관련 비즈니스는 틈새시장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비즈니스이고 「육체적·정신적 리후레쉬」, 「자연 가운데의 휴식·학습」, 「개성적인 지역문화와의 만남」이라는 도시주민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비즈니스, 지역자원 활용으로 지역개성이 풍요로운 비즈니스로 발전시켜야 한다.

3.2.2. 그린투어리즘의 추진 주체

그린투어리즘의 조건 정비 방향은 지역

자원의 재평가, 지역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특색있는 지역자원의 활용과 동시에 내발적인 그린투어리즘 관련 비즈니스의 기업화를 목표로 하되 그 추진은 행정기관, 관련단체, 지역주민이 일체가 된 「지역경영」적인 관점에서의 추진이 필요하다. 추진주체는 주민 주도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행정주도의 경우가 많다.

추진주체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행정주도형」과 「주민주도형」으로 대별할 수 있지만 추진 형태는 행정주도의 추진·운영에 주민이 참여하거나 혹은 지역주민의 자주적 추진·운영에 행정이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추진주체의 실제는 「행정주도·주민참가형」 또는 「주민주체·행정지원형」으로 되어 있고, 「행정주도형」의 경우는 지역주민 참가의 내용·정도 그리고 「주민주체형」의 경우는 행정지원의 내용·정도가 문제가 된다.

그린투어리즘의 조건정비는 「지역가꾸기」와 동시에 「농촌의 새로운 사업창출」이 필요하다. 더욱이 「지역가꾸기」 「농촌의 새로운 사업」을 담당할 인재 확보·육성이 필요하고 이들의 일체화된 추진이 요구된다.

그린투어리즘의 조건정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주도·주민참가」에서 「주민주체·행정지원」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소화, 고령화가 극한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지역주민에 의한 주체적인 지역활성화의 추진이 매우 곤란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아래서는 당연히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과제를 제기하고 그린투어리즘의 조건정비의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지만 그 경우,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야 하고 나아가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각각 지역실정에 알맞는 행정지원의 본질을 확립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그린투어리즘의 전개방향

4.1. 그린투어리즘 현상

① 근래 도시주민은 여유 있는 생활, 편안함, 자연을 추구하기 때문에 농업·임업 체험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근래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도시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생활자의 앙케이트 조사결과(1999년)를 보면 농촌지역 여행 83.8%, 농가민박 이용 66.7%, 농업체험 15.5%, 농촌지역주민과의 교류의향이 15.5%로 조사되어 1994년

○ **도시생활자의 앙케이트 조사결과**

조 사 항 목	1994년 조 사	1999년 조 사
농촌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싶다.	67.1%	83.8%
농업 체험을 하고싶다.	11.8%	19.1%
농촌 지역의 사람들과 교류를 즐기고 싶다.	3.4%	15.5%
농가민박 등 그린투어리즘을 위해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싶다.	53.8%	66.7%

주: (재) 21세기 마을만들기 塾 조사, 1994년도: 1,311인, 1999년도: 1,702인 청취조사

보다 높게 나타났다.

② 농촌지역에 있어서 그린투어리즘은 고용·취업·부수입의 기회를 창출하며, 농산물의 직거래, 농산물가공에 의한 부가가치 향상으로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농업인 및 농업관계자 사이에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그린투어리즘의 궁극적 목적인 활력있는 농촌사회 형성을 위해 필요한 요건으로 지역을 이끄는 다양한 형태의 인재를 육성(42.1%), 그린투어리즘과 도시농촌 교류의 추진(43.3%), 가공·판매 등 기업지원(38.9%) 등을 손꼽고 있다.

③ 농가민박은 매년 증가해, 2000년 3월 말 현재 약 5,000가구, 이용자 수는 약 870만명으로 추계된다. 민박 1가구 당 방은 9.2실이고, 연간 이용자는 1,729명으로 가동률은 12.4% 정도이다.

○ **농가 민박의 현황**

구 분	전 국 수 치	민박 1가구 당
농가민박 가구수	5,054가구	-
연간 이용자 수 (1999년 실적)	8,738,366인	1,729인
수 용 규 모	192,557인	38.1인
방 수	46,497실	9.2실
가 동 률	-	12.4%

주: 1) 2000년 구조개선사업과 조사
2) 전국 수치중 농가 민박 가구수 이외는 추계치

④ 2002년부터 초·중학교가 주 2일 휴일이 되거나, happy Monday에 의한 주 3일 연휴제가 실시됨에 따라 휴가 중에 농촌체재(그린투어리즘) 욕구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4.2. 신 기본법에 의한 그린투어리즘의 위치

① 그린투어리즘은 도시주민에게 여유와 안락함을 제공하고, 농업인에게 취업기회 확대와 지역활성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 있어서도 중요한 정책분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 **식료·농업·농촌기본(1999년 법률 제106호)**

(도시와 농촌의 교류 등)
제36조 1. 국가는, 국민의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깊게 하고, 더불어 건강하고 여유있는 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촉진, 시민농원의 정비와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2. 국가는, 도시 및 그 주변의 농업에 대해 소비지 근처의 특성을 살려, 도시주민의 수요에 입각한 농업생산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② 2000년도 3월 閣議에서 결정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그린투어리즘은 농산물 산

○ **관광인구·숙박인수**

단위: 백만인

구 분	1995년도 (A)	1999년도 (B)	비율 (B/A)	2005년도 (장래예측)
연 관광객 수	1억 8,700만인	2억 500만인	109.6	2억 963만인
연 관광숙박인 수	3억 2,800만인	3억 4,500만인	105.2	3억 6,769만인
연 총숙박인 수	6억 650만인	6억 6,200만인	109.2	-

주: 1999년 관광백서에서, 장래예측은 1999년 內政심의실 조사자료에서 산출

지직거래와 더불어 도·농 교류를 통한 농촌진흥시책의 일환으로 자리 매김하였다.

○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2000년 3월 24일 각의결정)**

> 제3조 식료·농업 및 농촌에 관계되는 총합적이면서 계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시책
> 3. 농촌의 진흥에 관계되는 시책
> (3) 도시와 농촌의 교류
> 가. 도시와 농촌 교류의 추진
> (가) 농촌에 있어서 체재형 여가활동(Green Tourism)의 추진, 농산물 산지직매를 계기로 농업체험 등의 촉진, 그 외에 도시와 농촌과의 교류기회의 확보와 교류의 장 정비 등, 도시와 농촌 교류의 촉진을 도모한다.

③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활동을 위해 기반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은 그린투어리즘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① 都道府縣 기본방침, 市町村계획의 책정, ② 농가민박의 등록, ③ 전국농림어업 체험 민박업협회의 지정 등을 정하였고 동법에 입각해서 한층 더 촉진되고 있다.

○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활동(그린투어리즘)을 위한 기반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개요(1994년 6월 29일 법률 제46호)**

> ① 都道府縣 지사 및 市町村에 의해, 농촌 체재형 여가활동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능 정비에 관련된 기본방침 및 市町村계획의 책정.
> ② 정비 지구내에 대한 보건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이용에 관련된 협정의 체결 및 市町村長의 인정.
> ③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에 의해 농업인이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농작업 체험시설 등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자금확보 또는 융통의 알선.
> ④ 농림어업 체험 민박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을 농림수산대신이 전국협회로 지정할 수 있고, 농림어업 체험 민박업자가 전국협회의 등록받는 것이 가능.

④ 1999년도말 47개의 都道府縣, 129市町村이 그린투어리즘 계획을 수립하였고 등록 민박수는 730 가구에 이르고 있다.

○ **그린투어리즘 계획수립 상황 및 등록 민박 가구수의 추이**

구 분	1995년도말	1999년도말
都道府縣 기본방침 수립	6都道府縣	47 都道府縣
市町村 계획 작성	6市町村	129市町村
등록 민박 가구수	547가구	730가구

4.3. 그린투어리즘 추진상의 문제점

① 도시주민은 그린투어리즘을 실천하고 싶어도 어느 곳에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떤 농가에서 민박을 실시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 **그린투어리즘 소프트의 개요**

내 용	인터넷상에서 머물고 싶은 농가민박을 검색가능한 소프트
사용방법	① 농수성, 일본농촌정보 시스템 협회, 농림어업체험협회 홈페이지에 접속 ② 희망지역, 일정, 요금, 사람 수, 체험메뉴 등을 입력 ③ 조건에 맞는 농가민박 일람 표시 ④ 농가민가명을 클릭하면, 상세정보(요금, 소재지, 문의처 등)가 표시(농가민박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

주: 농수성<http://www.maff.go.jp>, 일본농촌정보 시스템 협회<http://www.syskyo.or.jp>, 농임어업 체험 협회 <http://www.taiken.or.jp>

② 각 지역과 市町村에서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는 사례는 있지만, 전국적인 추진체제(네트워크)가 정비되어 있지는 않다.

○ **우수사례**

福島縣 鮫川村 (개별민박)	1995년 7월에 농가민박 「WARERA건강구락부」을 개업해, 상근 3명, 비상근 5명으로 운영. 지역 농업자들의 협력을 얻어 농작업을 통한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을 전개 · 수용규모 방수 6실, 수용규모 25명 · 주요 체험종류 : 산나물캐기, 모내기, 고구마모종, 메밀국수만들기 등 · 농업경영규모 벼75a, 야채30a · 연간 이용자 수 (1999년) 1,200인 · 연간 매상 (1999년) 850만엔
山形縣 櫛引町 (집 락 형)	1997년에 櫛引町宝谷 지구의 주민 33가구 (그중 농가19호)에서 시설운영관리조합을 설립해, 동조합에서 교류시설을 공동관리 운영에 의한 집락형의 Green Tourism추진 · 교류시설 : 숙박체험시설 1동, 메밀국수 가공식재 공급시설 1동 · 연간 이용자 수 (1999년) 약 9,000인 · 교류시설에 의한 농산물 판매액 약 4,000만엔
長野縣飯山市 (어린이들의 교류)	· 1999년에 관동지방의 초등학생(3~6년생) 50명이 농가민박에 숙박해 (2주간) 농업·농촌을 체험 · 체험내용 : 야채수확, 죽마 만들기, 두부 만들기, 농작업 돕기, 별자리 관찰 등 · 교류시설의 이용자 수 (1999) 11만인

○ **농가민박을 개업하는데 있어서 각종규제**

구 분	관계법령	규제내용	관계조문
용지의 취득·확보	도시계획법	개발행위의 허가	29조, 34조
	농지법	농지운용의 허가	4조, 5조
	농진법	개발행위의 제한	15조의 15
시설의 정비	건축기준법	건축확인	6조, 26조, 27조
	소방법	소방용 설비 등 설치	17조
영업의 내용	여관업법	영업허가	2조
	식품위생법	영업허가	7조, 20조, 21조

③ 농업인·농촌지역에 있어서 농가민박을 어떻게 개시하면 좋을 것인지를 모른다(수속, 투자, 각종 규제)는데 문제점이 있다.

4.4. 대응방향

① 그린투어리즘을 둘러싼 여건과 문제점에 입각해, 앞으로는 정책목표에 의한 그린투어리즘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도시주민에게 정보제공, 농업·농촌에 수용 체제의 정비 그리고 이것들을 결부시킨 전국적인 체제의 정비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 2001년도 요구 도시·농촌교류 대책 예산

전국사업 424,533천엔

도시농촌 교류스쿨 (신규)

교류전문가 인재뱅크 (신규)

都道府縣사업 29,333천엔

市町村사업 107,787천엔

그린투어리즘의 인식에 대한 교육연계 모델사업 (계속)

어린이들의 교류연계 활동사업 (신규)

학교교육 연계교류사업 (신규)

농촌생활체험 교류사업 (신규)

○ **市町村 농업진흥상의 중점과제**

항 목	현 황	장 래
그린투어리즘 등 교류형 농업을 전개	11%	25%
규모확대 농가 육성을 주요 시책 목표로 함	16%	15%
고령자 주체, 경관·환경 보존을 위해 농업추진	20%	8%
조직경영체 육성을 주요한 시책 목표로 함	9%	12%

주: 「후계자 육성을 위해 자치체 적응시책 조사」 (관동농정국 구조개선과, 199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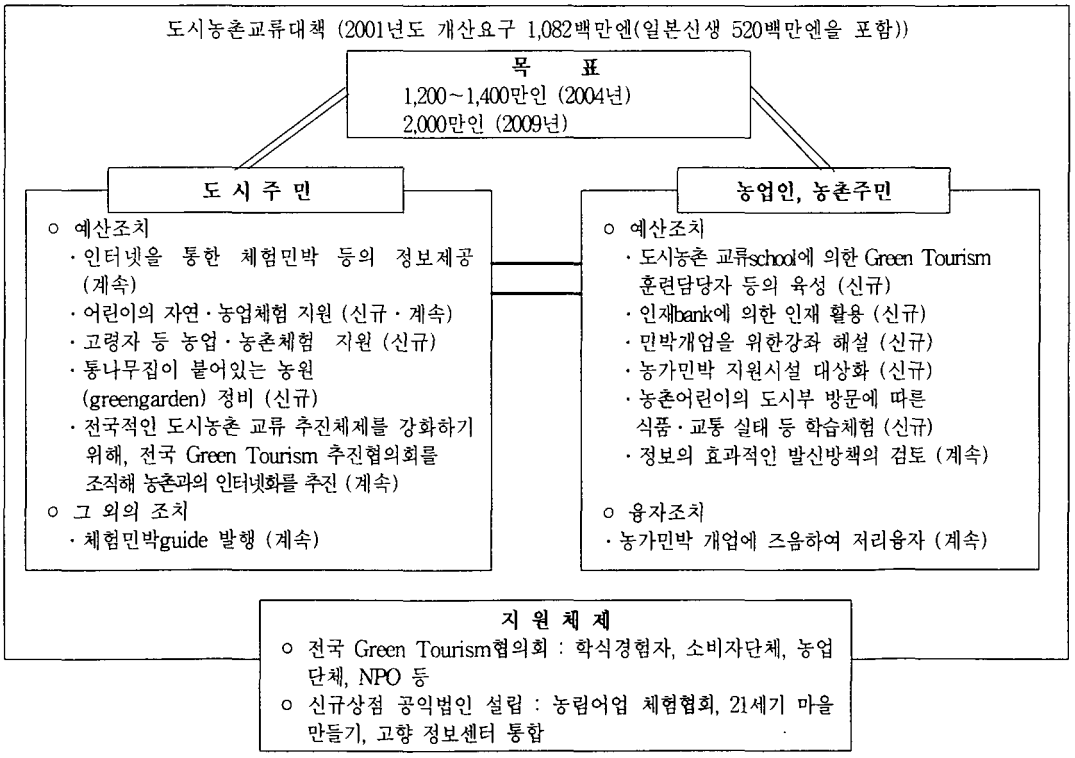
2001년도 예산 요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확충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는 그린투어리즘 등 교류형 농업의 전개와 조직경영체 육성에 정부의 예산이 늘어날 전망이다.

② 그린투어리즘의 목표로는, 현재의 교류인구가 800~900만명인 것에 기초해, 5년 후에 1,200~1,400만명을 목표로 한다.

○ **그린투어리즘 정책목표**

	그린투어리즘인구
현 재	800~900만명
5년후	1,200~1,400만명
10년후	2,000만명

그림 2 **2001년도 概算요구에 의한 그린투어리즘의 추진**



○ **목표치의 산정근거**

1. 현 상 치	(1) 농가민박에 대한 실태조사 추계 (2000년) : 현재 Green Tourism 인구(추계치) 850만명 (2) 도시주민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 (1998년)로 부터 추계 : 870만명 숙박 (3) 농가민박 가동률로부터 추계 (2000년) : 840만명 숙박 (4) 농가민박에 대한 sample 조사 (1999년)로부터 추계 : 850만명
2. 목표설정 (5년 후)	과거 추세로 판단해서 5년 후 농가민박 수는 5,500가구, 가동률을 현재 12%부터 16~18%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
3. 목표설정 (10년 후)	과거 추세로 판단해서 10년 후 농가민박 수는 6,000가구, 가동률을 20%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

③ 도시주민에의 지원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체험민박 등 정보제공, 어린이·고령자의 자연·농업체험 교류 등을 지원하고 통나무 집이 있는 농원(greengarden)을 정비하며, 전국 Green Tourism 협의회를 조직해, 농촌과의 네트워크화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시책을 전개한다.

○ **도시농촌 교류대책에 의한 도시주민 지원 (요구기준)**

항 목	금 액 (천엔)
농업농촌 정보 상호접속 추진사업	304,100
전국 교류 파트너 조직제휴사업	27,973
어린이 교류 대책사업	47,104
농촌생활 체험 교류사업 (도시측 고령자의 교류)	8,560
편안한 교류공간 정비사업 (일본 신생 특별)	520,000

○ **어린이 교류대책 (문부성연계사업)**

단위: 천명

사 항	1999년도까지		2000년도 (8월 현재)	
	지구수	참가수	지구수	참가수
장 기 (2주간)	10	332	10	245
단 기 (1~3일)	-	-	19	2,046

○ **도시농촌 교류대책에 의한 농업인지원(요구기준)**

항 목	금액(천엔) (%)
도시 농촌 교류스쿨	63,504 (28.4)
교류전문가 인재뱅크	17,663 (7.9)
체험 민숙 조직화 추진 활동사업	51,399 (22.9)
교류파트너 조직 네트워크 형성 조사사업	9,855 (4.4)
교류정보 등 상호활용 추진사업	81,457 (36.4)
계	223,878 (100.0)

○ **교류시설의 정비상황(1994년~1999년)**

사 업 명	시설 수(개소)
농업 구조개선 사업 합계	328
어린이 체험농원	8
시민접촉 농원	19
고향 체험시설	19
체험농업 관련 기계시설	4
음식의 건강 거점시설	21
종합교류 터미널 시설	116
농림어업 체험 실습관	28
체재형 농원시설	17
농림어업 체험시설	16
접촉광장시설	80

④ 농업자·농촌지역에의 지원으로는 도시농촌 교류 스쿨에 의한 그린투어리즘 지도자 등을 육성하고, 이들을 인재뱅크에 등록해, 인재의 폭을 넓혀 활용하며, 민박경영 매뉴얼 작성, 농가민박 지원시설의 리스 대상화 등 경영구조 대책 사업을 포함한다.

⑤ 체제정비로는, 2000년도 가을, 전국 그린투어리즘 협의회를 조직하는 동시에, 2001년에는 3개의 법인을 통합해 도시농촌 교류를 담당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한다.

○ **전국 그린투어리즘협의회 구성안(2000년도 예산)**

- 도시측단체 (경제단체, 소비자단체, 노동단체, 관광업자 등)
- 농산어촌측단체 (지방자치체, 농업단체 등)
- NPO
- 학식경험자 등

○ **그린투어리즘에 관련된 공익법인**

명 칭	설 립	설 립 목 적	주 요 업 무
(재) 농림어업 체험협회	1982. 6	도시와 농산어촌 교류의 장 확보	·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원 · 도시농촌 교류의 추진을 위한 지원 · 체험농림어업에 관한 광고선전 · 체험농림어업에 관계되는 등록업무, 조사 및 연구
(재) 고향 정보 센 터	1985. 4	도시와 농산어촌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	· 농산어촌의 고향정보의 제공 · 고향정보에 관련된 상담활동 · 도시주민 등 농산어촌에 대한 욕구를 농산어촌에 제공 · 교류 거점 시설의 설치·운영
(재) 21세기 마을가꾸기 塾	1990. 6	새로운 정보 시스템 조사연구 등 농촌과 도시가 일체가 된 국민적 규모의 운동을 전개	· 입지조건에 맞는 각종기술에 관련된 조사연구 · 활성화를 위한 인재육성 · 활성화에 관련된 보급 선전 · 영농환경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기법개발
(사) 전국농업 구조개선 협회	1963. 8	지역 농업 책임자가 될 농업경영의 육성 및 확보를 위해 총합적인 환경정비	· 지역지원활동 · 담당자 육성에 관련된 조사연구 · 회원 상호간 연락제휴
(사) 일본농촌 정보시스템협회	1975. 1	농촌 다원 정보 시스템 등의 보급육성	· 농촌정보시스템 개발·조사연구·계획설계 · 농업기상정보, 그 외의 정보조사연구 · 해외 농촌정보 시스템 조사연구

○ **그린투어리즘관련 주요사업 (총괄표)**

단위: 백만엔

사업명		2000 예산액	2001개산 요구액	비고
구조개선국	도시농촌교류 정책사업	569	562	푸르름과 자연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짐을 배경으로 해서, 농업·농림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농촌 교류school를 설치하는 동시에, 문부성과의 연계로 초·중학교의 수업의 일환으로 어린이와의 농업·농촌체험 활동 등을 실시
	편안한 교류 공간 정비사업	0	520 <520>	도시주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여 건강하고 여유있는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통나무집 부속 농원 등을 추진
	경영구조 대책사업	21,706	32,308 <10,500>	경영체의 확보·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시설의 정비 등을 실시. 그 일환으로, 그린투어리즘 등 도시와 농촌과의 교류를 기반으로 해서 농업경영의 다각화·복합화 등을 추진
	신산촌 진흥 등 농림어업 특별대책사업	20,082	20,925 <2,700>	산촌 등 중산간 지역의 진흥을 한층 더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개성을 살린 다양한 지역산업진흥, 산촌·도시교류와 그것을 지원하는 풍부한 자연환경, 지역의 담당자 확보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지역진흥시책을 전개
임야청	삼림의 새로운 이용종합 대책	7,139	7,571 <90>	삼림 환경교육, 삼림 만들기에 국민참가, 통합적인 세대의 건강 만들기 등 새로운 요청에 대응해 산촌·시설의 정비와 이용을 추진하는 동시에, 마을 산림의 새로운 보전·이용활동과 문부성과의 연계에 의해 「삼림의 자식club의 활동」지원을 실시
	임업구조 개선 사업	18,183	18,549 <3,840>	삼림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취업기회의 확충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산촌체험·교류시설·지역산물 가공시설 등 정비
수산청	연안어업 구조개선 사업	7,953	8,099 <1,989>	어업자원의 증대, 책임자의 육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시설의 정비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자원의 활용에 의해 도시주민 등에 열린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 지역산물 전시판매시설, 해변 환경 활용 시설 등을 정비
	내수면 환경 활용 종합 대책사업	888	795	내수면 지역의 유용한 지역자원을 유지·활용해, 도시주민과의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체험학습시설, 호소(호수와 늪) 하천광장, 하반(강가)·호반(호수가) 환경활용시설 등 정비추진
	건강한 어촌 만들기 추진사업	78	52	어업지역의 실태에 즉각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산물을 비롯한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특산품 만들기와 판매활동, 도시와 어촌과의 교류활동, 어업지역의 진흥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책의 검토 등을 추진

주: < >는, 신규사업으로써 예산에 포함된 수치임.
자료: 전국농업구조개선협회, 농업구조개선 2000.10. p.22

5. 일본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시사점

우리나라 관광농업개발사업 가운데 주종을 이루는 관광농원은 1984년부터 2000년까지 약 1,231억 원의 국고를 융자 지원받아, 모두 491개소가 지정되었으나 2000년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전체 농원의 75.4%인 370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이중 절반 정도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는 등 당초 정책적 기대효과와는 다르게 운영됨으로써 관광농원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i) 그 동안 많은 관광농원들이 경영능력은 감안하지 않은 채 관광농원개발사업의 지구지정을 받아내는 데만 급급했고, ii) 입지별·자원별·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iii) 무리한 시설투자를 한 곳이 많아 IMF 관리체제 이후 부실 관광농원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1990년대 초반에 도입된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정책은 개별농원의 시설투자가 중심이 되는 우리나라 관광농원개발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추진시책은 아름다운 마을 건설, 도시민의 수용체재정비, 도시와 농촌의 상호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추진지원체제의 정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에 있어서 키워드는 행동하는 체험 중심의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활동과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도·농교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덧붙여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자세를 들 수 있다.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정책은 지역자원의 개발과 지역특성을 표출하는 민박을 형성,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역산업의 조화를 모색하며, 농촌주민이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공급하고 그린투어리즘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도 역점을 두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점은 중앙정부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지정하여 시달하는 방식이 아니고, 지자체가 그린투어리즘의 경제적·사회문화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성에 바탕을 둔 다양하고 개성있는 지역발전 프로그램을 주도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농촌관광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은 개별운영형 관광농원의 지정에 의한 실적 위주의 양적 확대보다는 기조성된 관광농원부터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대다수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농촌관광 개발대책을 마련하여 다수의 내방객 및 재방문객의 유치를 위한 다양한 농촌관광산업 개발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농림부. 2000. 「2001년도 농림사업시행 지침서(농촌개발)」.

박광순. 1998. "일본의 중산간지역의 활성화와 그린투어리즘." 1(1).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전남대학교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유상오 등. 1998. "일본형 그린투어리즘 현황에

대한 연구."「관광농업연구」. 5(1). 한국관광농업학회.

유승우. 1989. "관광농업의 개발전략에 관한 小考."「농촌경제」. 1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승우 등. 1997.「관광농원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보고 R37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승찬. 2000.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정책방향."「관광농업연구」. 7(1). 한국관광농업학회.

전운성. 2000.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그린투어리즘."「강원관광의 이해」. 강원사회연구회.

정기환. 2001.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발전방향."「농촌경제」. 24(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藤井信雄. 1972.「觀光農業への招待」. 富民協會.

宮崎猛. 1998.「グリーンツーリズムと日本の農村」. 農林統計協會.

21ふるさとと京都塾. 1998.「人と地域をいかすグリーンツーリズム」. 學藝出版社.

横川洋. 1998. "グリンヅーリズムの意義と可能性."「九州マーケテング・マイズ」. Vol. 6, 九州マーケテング協會.

横川洋 등. 1999. "日本における農業の多面的機能論とグリンヅーリズム."「21C亞太地域地方政府の再創造と地域經濟の跳躍(국제학술심포지엄)」. 江原大地域開發研究所.

山崎光博外. 1993.「グリンヅーリズム」. 家の光協會.

全國農業構造改善協會. 2000.10.「農業構造改善」. 2000年度 10月號.

21世紀村づくり塾. 1997.「グリーンツーリズムの計劃と實踐」.

21世紀村づくり塾. 2000.「グリーンツーリズム推進事業報告書」.「日本型グリンヅーリズム新展開」.